웅진케미칼, 동남아 필터 시장 공략

웅진케미칼은 필터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해 싱가폴사무소를 개설했다.
박찬구 대표이사는“ 싱가폴 사무소는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시아 필터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 ”이라고 강조했다.
웅진케미칼은 싱가폴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동남아의 필터 매출을 2011년 52억원에서 2013년 10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웅진케미칼은 미국 · 일본에 이어 1994년 국내 최초로 역삼투필터 개발에 성공해 국내 역삼투분리막 시장의 6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.
해외 50여 개국에 가정용 및 산업용 역삼투필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인디아와 중동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 생산거점을 확보했다.
웅진케미칼은 2011년 전년대비 30% 이상 증가한 121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, 2013년에는 2102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1/1/31_2/7>